

## 安全意識

우리가 일상생활을 營爲함에 있어 각종 예기치 못한 危險으로부터 不斷하게 挑戰을 받고 있다. 이러한 危險은 經濟가 成長하고 文明이 發達한다고 하여 결코 除去되거나 輕減되지 않고 오히려 增加하고 있다.

일종의 文明에 대한 反作用(跛行技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科學과 産業의 發達이 環境을 複雜하게 만들고 그 結果 災害의 危險이 人間本來의 護身本能이나 注意力만으로는 막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災害發生의 對備策에 앞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安全에 대한 意識을 構造的으로 考察해 보면 우리는 傳統的으로 道教·佛敎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몸에 배여 있음) 危險의 發生이 神의 攝理로 생각하여 諦念的으로 받아 들이는, 즉 宿命的 思考方式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막연히 나에게는 그런 災害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면으로만 본다면 基督教文化圈과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儒敎와 大家族制度 등으로 西歐社會와는 달리 個人主義思想이 발달하지 못하여 自己責任과 義務下에 危險을 對備하지 못하는 生活習性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은연중 실생활(가정, 직장 등)에 浸透하여 어떤 事故에 대한 責任所在을 明確히 하겠다는 생각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原因分析, 對處方案 등에 있어서도 科學的인 思考가 미숙하고 막연하게 해결(공동대처 등)하려는 경향이 있다.

交通事故 世界 1位, 각종 事件事故의 頻發 등이 우연이 아닌 어찌면 必然的인 結果로 보여지며 이것은 現代科學에 걸맞는 安全意識의 缺如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의 尖端科學時代를 맞이함에 있어 이러한 傳統的(?) 思考方式은 과감하게 轉換되어야 할 것이다.

하인리히의 事故分析에 의하면 모든 사고중 대부분은 사람의 잘못에서 起因된다고 한다.

즉 天災地變(낙뢰, 지진, 태풍 등) 등 不可抗力의으로 일어나는 事故는 겨우 2%에 지나지 않고, 物理的인 原因(危險한 狀態, 物理的 惡條件 등)과 人的要因(危險한 行爲, 人的過失 등) 등으로 未然에 豫防이 가능한 災難이 98%에 이른다는 研究結果는 우리에게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 結果는 國內에서 發生하는 火災原因과도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頻發하는 災害의 效果的인 對備策은 敎育, 弘報(不完全한 行爲의 豫防, 安全意識 鼓吹 등), 철저한 法規施行 및 安全點檢 등 總體的인 危險管理를 통해서만 可能하리라 생각되어 진다.